소동난 日收稧無盡

大韓商工振興에 二百餘商人殺到

돈받고 約束履行은 밀기만 한다고

<大韓商工振興회사에밀려든가입자들>

16일 시내中구 忠武로一가五一 大韓商工振興회사 (사장金鉉照씨) 에는돈을 재촉하려온 二백여명의 상인들로 한때 소동이 일어났다

작년8월 창립된 이회사는 가난한 상인들로부터 一구당五만환(하루五백환씩 五〇일간불입)을 불입하면 이자를 붙여서 三배로 융자해준다는 조건으로 서울과 지방에서 약二만구 (전액불입하면도 합십억환…大韓振興업무과장 尹鉉燮씨의말)를 모집한후 사업이 실패하여 지불해야할돈을 내어주지 못했을뿐만아니라 약속어음만 발행해놓고 차일피일 지불을 연기해왔다

목속에지친 가입자들은 연일 회사로 몰려와 원금이라도 내놓으라고 아우성인데 관계자들은 다음과같이 말하고있다

▲大韓振興取締役 安葉台씨의말=정부의 보증담보로 은행에서 융자가 와정되었으니 오는25일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지불하겠다

▲加入者 [illegible]致鉾씨의말=지난1월에가입3월28일에 십五만환을 융자해준다고 약속어음을내주고연기만거듭하니 회사측을 믿을수없다 사기나 아니면 다행이겠다

▲加入者金完濟씨의말=우선회사가 살고나야 돈을받을터이니 좀더 기다려보아야하겠다

21日言渡公判 金雄洙등被告 「革裁」上訴審

혁재상소 제一심판부는 16일하오 一호법정에서 전 六군단장 金雄洙피고와 동군단 십一사단장 [illegible]剛피고에 대한 반혁명 사건상소심변론공판을열었다

이날변호인측은 金피고가 군사혁명을 방해할목적으로 십一사단에 출동지시를 내린바없고 피고등이 즉각적으로 군사혁명에 적극적인 태도를취하지 못한것은 동군단이 한국군과 미군의二중지휘를받는 목수성때문이라고 각각무죄를 주장하였다

심판부는 판결공판을 오는21일상오에 개정한다

稅務署서 差押騷動

政府相對勝訴者慰藉料係로

【釜山發】 16일하오 釜山세무서에서는 정부를 상대로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원고 裵吉燮(10)양과그의친권자 文順姬(31=裵양의모친) 朴粹玉(60=裵양의할머니)씨등을 대리한 釜山지법집달리 裵德秀씨가 국세九십만환을 재차압하였으나 七십만환은 돌려주고 나머지二십만환만 차압하였다

지난60년10월13일당시晉州세무서 사무계원으로있던 裵京照(40)씨가 陜川군赤中면면사무소에 출장가 면숙직실에서 자고있을때 술에취한 赤川지서근무 金載훈순경이 심검문, 옥신각신하다 돌아간 金순경이「카빙」총을 갖고다시 나타나 裵씨를 불러내어 쏘아 즉사케하였는데 裵씨의 유족들이 정부를걸어 三백여만환의 위자료청구소송을제기 지난1월8일大邱고법민사부 (裵顔熙부장판사)에서 원고三명에대해 二백四십一만四천二백八五환을 지불하라는 화해판결을받았으나 관계기관에서 응해주지않아 국세를차압하기에이른것이다

失足死로斷定

典農洞少年變死에 氷菓店主人을立件

속보=16일하오 시내典農동「스타」「아스크림」집(주인李九錫씨)우물안에서발견된 소년변사체를 수사중인 淸涼里署는 동변사체의 신원을 路十里동四二九에사는 許계원(女·46)씨의 차남 朴大열(14)군으로 밝혀내고사인을「실족하여 우물에빠져진것으로확인, 수사에一단락을지었다

한편 위험한우물을 방치하였다는점으로 李씨를 중과실치사혐의로 입건문초중이다

醉한觀光客이 百濟甕棺깨쳐

國立博物館서

16일하오4시쯤 서울德壽宮안에있는 국립박물관 二층七호실에서 술에취한 관람객들이 장난끝에 진열된「백제옹관」(百濟甕棺)을 깨뜨린 사고가일어났다

조사에의하면 관람하러 들어온 청년들일행五명중 한사람이 옹관을구경하고 있는 그의친구들뒤에서 떠다밀어 앞으로넘어지면서 옹관이깨어졌다한다

신고를받은 西大門署는 이들청년二명을 문초중인데 뒤에서떠다민 사람은 郡和默(27=인쇄업·樂園동二四三)씨이며 넘어진사람은 康聚善(30=인쇄업·唐珠동六七)씨로 판명되었다 박물관당국자에 의하면이들은모두 술에취하여 있었다한다

이옹관은 60년10월全南羅岩군始終면 內洞리에서발굴된 百濟시대의 항아리관(棺)이다 발굴당시 이옹관은 밑부분이깨어져 있었으므로 복원(復元)하여 두었던것인데 이번다시 복원하려면 약십五만환이 필요하며 기간은약一개월을요하리라 한다

"移民에難關많다

地域·豫算등先決돼야"

韓移民交涉團長歸國談

보사부차관韓國鎭씨를단장으로하는 정부이민교섭단일행四명은 一개월간의 현지답사와 교섭을마치고 16일낮12시45분NWA기편으로귀국하였다

韓차관은「브라질」과「과테말라」두나라에서 우리나라이민을 환영하고있으며 연내로첫이민단을보낼것이라고말하였으나 이번실지답사를통해 이민사업은결코 낙관을불허한다는것을발견하였다고강조하였다

「브라질」측에서는 우리이민을 정착시킬 개반지역으로서 三三개소를제시하였으나 이지역들은대부분 궁벽하고 지형적으로 많은노동력을필요로한 곳이며 기후풍토도 우리나라사람에겐 적합치않았다고 韓차관은덧붙였다

또한 좋은지역은 이미 日本사람들이 다차지하고있으므로 옛날滿洲에이민하던경우보다도 어려운사업이될것이라고말하였다

지난3월15일부터 한달동안 주로「브라질」을중심해서 이민에필요한 여러가지 기초조사와「브라질」정부와의 정식교섭을하고온 韓차관은 이민은 얼마든지 보낼수 있으나 이에필요한 정부의 예산의 뒷받침이 문제라고하면서 개방지역문제로 우리정부와「브라질」은 앞으로 더 절충해야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정부방침대로금년안에 이민이 신지로「브라질」로 떠날수있게될것으로 생각한다고 韓차관은 말하면서「브라질」은 여기서 생각하는것처럼「파라다이스」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美軍部隊勞務者의 勞賃引上要求

42—30%·週有給休日制等도

전국에 약一만八천명의 조합원을가지고있는「전국외국기관종업원노조」에서는 16일하오미군종업원에대한 전면적인 임금인상요구안을「멜로이」주한 미군사령관에게 정식제출하였다

동노조에서는 노무계통에四二% 사무계통에三〇·二%의 인상을요구하고있는데이밖에도 퇴직금제도의 소급실시와 주(週)유급휴일제도의실시도 요구하고있다

미군기관에종사하는 종업원들은 작년5월부터 미군당국이 주五일의 근무제도를 실시해왔기때문에 임금소득이 약십七%감소되었다하며 현재 최고십五만환에서부터 최하二만八천환이라는 상후하박의 임금을받고있다고한다

擔當檢事에 某種措處하기로

龍華敎育座 集團檢診事件

16일하오 검찰에서는 龍華敎育座 집단검진당시 압수수색영장 신청방식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지못했음을 인정하고 당시영장을 신청한 全州지검담당검사 裵容九씨에 대하여 모종 조치를 취하기로 법무부당국과 합의하였다

全州지검에서는 龍華敎교주 徐白日의 간음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全州지법에 部台兩수라외 三三명에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영장방식을 무시하고(개별적인 사항과 내용을적시하지않고) 무더기로 신청발부 받았었다

城北洞에불

16일밤11시반쯤 시내城北구城北동山二에있는 목공소(柳裕成, 嚴성수양씨경영)에서 불이일어나목공소건물一동과 가구를전소시켰다. 동화재는 소방차가출동 45분쯤 진화되었는데 손해액은 약一백만환 화인은 경찰에서 조사중이다

注意喚起키로決定

新聞倫理委서韓一保育院關係記事에

16일하오 한국신문 윤리위원회는 지난2월13일자본보조간에『90餘孤兒등祭國脫出 어제楊州韓一保育院서』라는 제하에 실린 기사내용에대해 韓一보육원원장 蔡玉女씨가 제소한건에 대하여「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한다」고 결정하였다

집主人殺害事件

睡眠劑먹이고打殺

檢屍로나타나자犯人이自白

속보=16일하오西大門署는 鐵泉동집주인 살해사건피살자인 徐노인의시체를 해부를 적십자병원에서국립과학수사연구소직원의집도로 실시한결과 소량의 약물과 徐노인의 후두부가 ㄷ자형으로 四,五「센티·미터」가량 파열된것을발견, 범인 朴商道를추궁한결과 徐노인을 빨래방망이로 때려죽인 사실을 자백하였다

朴은 범행당일인 지난26일하오1시쯤 徐노인에게 먼저 수면제를먹여혼수케한후 빨래방망이로머리와 전신을때려 죽인것이라하는데 범행시쓴 방망이는아직압수되지않았다

三大產業鐵道

來月初부터 着工

工事費近三百億·三年後竣工

慶北線、旌善線、東海北部線등三대산업건설선은오는5월초순에착공할것이라고 16일하오교통부에서밝혔다

철도건설五개년계획에따라 착공되는三대건설선 총공사비는二백九一억환으로 東海北部線(玉溪—襄陽間=三二K·二八억환)은 연내에준공될것이라는데 慶北線(店村—榮州=五八·六K·백一〇억환)과 旌善線 (禮美—旌善=四二K·一백五三억환)은 각각三개년후에 완공된다

서울地檢誣告部를 特別搜査部로改稱

16일하오 서울지검에서는 종래무고사건을 취급하던 무고부의명칭을「특별수사부」로변경 부장검사를 배치하였다 李龍熙

馬來女優네名來韓

亞洲映畫祭參加次

【싱가포르16日AP】에마장한「마레이」의 영화배우넷이 5월10일부터서울에서열릴「아세아」영화제에 참석할예정이다 이네명의여우는「카다이·케리스」영화사소속「라마·알리」「르즈·야티마」「우미·칼로움」그리고「파티마·아메드」이다

<22년만에 눈을뜬李군>

19日壯途에

유토盃爭奪籠球團

오는21일부터 5월5일까지 우방「피립핀」「마닐라」에서열리는 제一회「유토」배 쟁탈아시아四개국(韓·日·比·中)남녀농구대회에 출전하는韓國은행남녀농구단은 오는19일 장도에오를예정인데 그진용은다음과같다

▲團長 朴容榮 ▲監督 朴榮信 ▲男子部코치 金廣澤 ▲同主務 趙秉賢 ▲女子部코치 崔泰坤 ▲同主務 康炳[illegible] ▲男子選手 文賢元 趙秉元 金鐵甲 朴順子 崔京玉 白南正 金昌學 許德一 文仁[illegible] 崔仁子 李成子 韓泳子 韓惠麗 ▲女子選手 朴南 金尙 李秉 元京 李英 崔多 [illegible]

春季籠球決勝戰績

▲女中決勝「리그」第一日

梨花女中	34	23—15 11—8	23	進明女中
啓星女中	26	11—14 15—10	24	淑明女中

▲男中決勝「리그」第三日

景福中	43	26—27 17—14	41	光新中
漢榮中	61	35—22 26—24	46	普成中
徽文中	34	16—15 18—15	30	[illegible]

▲男高決勝「리그」第五日

光新商	87	50—23 37—25	48	漢榮商

高校野球어제戰績

서울高	0	0	0	0	0	0	0	2	0	2
淸涼綜合商	0	1	3	1	1	0	0	0	×	6
徽文商	0	0	3	0	2	1	0	0	0	6
城東高	0	0	0	0	0	0	0	0	0	0

泰、「버마」를擊破

라만盃爭奪蹴球

【방콕16日로이타同和本社特約】제四회「아세아」청소년축구대회의 셋째번날인16일에「태국」은「버마」를1대0으로물리쳤다

先天的盲人에光明

手術받고 完全한눈으로

○…15일하오 적십자사 개안수술반에 의해 날때부터 앞못보던 맹인 李殷燮(22)군이 햇빛을 보게되었는데 이번개안수술로 눈을뜬 一백七〇여명중에서 李군은 기적적이라 한다 맹인으로 빛을 본것은 이번이 처음이라한다

○…시내 鍾路구 蓮池동 二七에서 겸술업을하는 李宗熙(55=맹인)씨의 三남인 殷燮군은 한쪽눈을 어려서부터 모두 못보는데「세브란스」병원안과장 洪[illegible]박사의 회망을 버리고 있었다 눈을 뜨게된 殷燮군은 술술로 수술을 끝내고 난순간 이 세상이 다만 안막에 비쳤다고 말하면서 의사의 말대로 빛을 볼수있을거라고 어린애처럼 좋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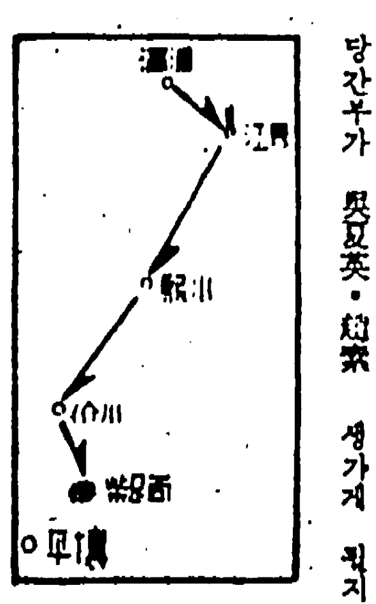
죽음의 歲月 ⑱

拉北人士 北韓生活記

安在鴻등 다시平壤으로

南下길에時計팔아燒酒사마시며

오랫만에醉하자弄談도



11월초순부터 패잔병을 모아 재편성된 인민군과 중공군이 滿浦·熙川방면에서 반격을 개시 12월4일에 平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滿浦에 쫓겨갔던 괴뢰 중앙각기관은 12월중순 점차적으로 平壤으로이동을 개시하고 일부괴뢰간부들만 협상파및지명납치인사 四九명과함께 한숙소에 남았다.

이듬해인 五一년3월 초의 어느날밤 갑자기 당간부가 吳夏英·趙素昂·安在鴻·嚴恒燮·宋虎燮·尹琦燮·金紫鍋·朴烈등 십이명만을 집합시키고

「우리는 중국군(중공군)이「항미원조」(抗美援朝)의 깃발아래 우리를 도움으로써 대량진출을 하였소. 여러분은 곧 平壤으로 떠날준비를 해주시오. 그런데 가다가 중국군을 많이 만나게 되고 때로는 한집에서 또는 이웃에서 누워잘 경우가 생기게 될지라도 절대로 그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는일이 없도록 상부로부터의 지시니 각별히 유의하시오」

하고 말을 끝낸다음 곧 출발준비를 시켰다.

이들 인사는 곧 그동안배급받은 옷뭉치, 양치소금, 담배등을 보따리에 꾸려가지고 다떨어진 담요를 뒤집어쓰고 대기중인 낡은「추럭」에 올랐다.

한밤중 못하지 않은 이소동에 놀란 나머지 인사들은 어디로 떠나는 것인가? 또는 딴곳으로 별도 수용되어 가는것인가? 의아심에 잠겨 모두 전송을나왔다. 그리고 몇달동안같이 지낸 정에 못이겨 석별의 눈물을흘렸다. 이들이 平壤을향해 떠난 납치인사들중의 제一진이었다.

三월이라지만 매운찬 바람에「추럭」위에서 밤새도록 그들은떨었다. 江界를 거쳐 溫井에 이르렀을때 폭격이 너무 심하여 방공호에서 쪼구리고 앉아 꼬박하루를 새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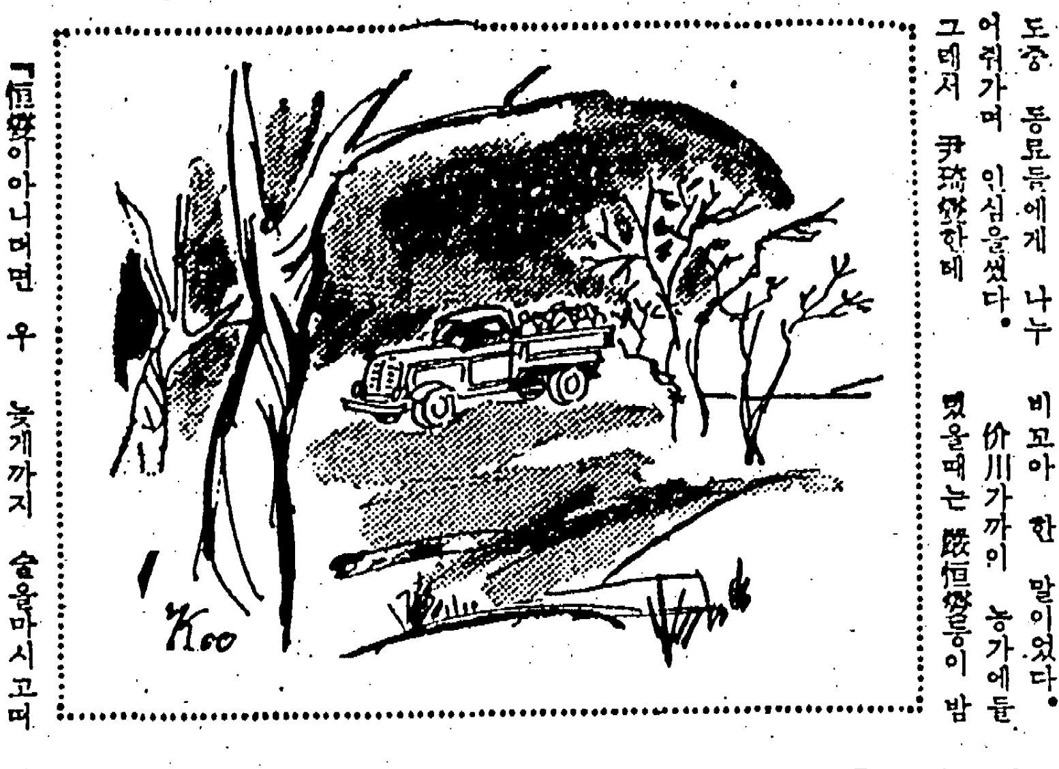
다음날 이들은 하루를 더 묵으며 오랫만에 溫泉목욕을하였다. 미지근하고 그리 수질(水質)이 좋지는 못했지만 묵은 때를 씻고 나니 홀가분한 기분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이날밤 소비조합에서 소주가 공급되어 차리가 벌어졌다. 趙素昂은 술을마시고 오랫만에 자위를 하며 한시를 읊었다. 尹琦燮은술이 잔뜩 취해서 재담을 늘어놓았고 嚴恒燮은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어 술을 더 달라고 교섭을 다니며「곧 우리는 서울로 가게될거라」고 떠버리다가 趙素昂으로부터

「아마 당신이야 가게 될거요. 그러나 어디 우리야 가게 되겠소?」

하여 창피까지 샀다. 安在鴻은 다만 침울한 표정으로 침묵만 지켰다.

溫井을 떠날때 嚴恒燮은 자기가 갖고있던 팔목시계를 주민에게팔아 그돈으로 술과 담배를 잔뜩 사서 가는 도중 동료들에게 나누어주가며 인심을썼다. 그래서 尹琦燮한테



「恒燮이가 아니었더면 우리는 술도 못얻어먹고 담배도 못피울 판이었군. 선전부장보다도 외무부장이 더 적임이었을걸 그랬어.」하고조롱까지 받았다. 이것은 前에임시정부때 嚴恒燮이 선전부장이었던것을 비꼬아 한 말이었다.

价川가까이 농가에들렀을때는 嚴恒燮등이 밤늦게까지 술을마시고떠드는바람에 吳夏英이「다들아직도젊어서한창이로군」하고 넌지시 타이르며잠자리를 재촉하자

「그럼우리가 늙었단 말이요?인제부터 한참 일할나이에」하고 도리어 嚴恒燮이 대들었다.

이들 제一진은 떠난지 약一주일만인 3월10일쯤 平壤에서 약二〇리 떨어진 大同군始族면 농가에 이르러 짐을 풀었다.

제一진이 떠난지 이틀후 趙琬九·元世勳·丘德煥·金長烈·金綮煥·金茲柱·白象圭·梁在廈등으로 구성된 제二진도 곧 始族면에도착 합류되었고 중병으로 시달리던 趙琬九·吳正方·張蓮松등환자와 나머지 인사들은 훨씬 늦어 4월10일경에야이곳에 도착하여 우선근처농가에 머무르게 되었다.

〈內外問題研究所提供〉

訂正

15일자본란에서 한국세군사령관「로드」가 사망하였다함은 당시미국종교인一명이사망한사실에대한 필자의착각이었으며「로드」는一九五三년봄에 석방되어 독일경유 영국으로간것을 알아올려두기합니다.

文化財委員17名을任命

16일 문교부는 문화재위원 십七명을 다음과같이위촉하였다

▲第一分委(有形文化財) 金庠基(史學家) 金載元(博物館長) 李相佰(文理大敎授) 金斗鍾(史學家) 金元龍(文理大敎授) 黃壽永(東大敎授) 李弘植(高大敎授)

▲第二分委(無形文化財) 金重業(建築家) 李惠求(師大敎授) 石宙善(同德女大敎授) 金千興(舞踊家)

▲第三分委(記念物) 朴萬奎(科學館長) 李德鳳(植物學者) 崔基哲(師大敎授) 鄭文基(動物學者) 孫致武(文理大敎授)

空港日記 (16日下午)

入國 ◇낮12時50分 NWA機便(乘客87名) ▲南宮鍊氏(極東海運社長)=美國에서 [illegible] ▲鐵工場設立 外資導入交涉後 洪維善氏 ▲金誠一氏(文敎部文敎局長)=東京에서열린 亞洲地域文敎長官會議參席 ▲「무네·요한손」氏(「스웨덴」內務長官)·「캄페리손」氏(同次官) 以上「메디칼·센터」契約延長協議次

出國 ◇下午3時30分 NWA機便(乘客82名) ▲朴[illegible]氏(商工會議所副會長)外23名=大阪見本市場參加 ▲吳德俊氏(農協會長)=東京에서열리는亞洲地域農協理事長會議參席次 ▲「조셉·에거」氏(美國務省東北亞局長)=外務部와 協定에關한討議마치고

공고제五一三호

재입찰공고

一、품목 규지(수세식) 수량 八〇〇
二、입찰년월일 서기一九六二년四월二一일 一〇시
三、입찰장소 및 입찰방법 육군제一조달근무부대 입찰실 일반 경쟁입찰
四、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百분의十이상 현금또는 국채를 납부할것
五、입찰참가자등록 입찰희망자는 一九六二년四월二一일까지 등록할것
六、설계도 사양서등은 입찰실에 비치되었음
七、입찰자는 입찰지시서 계약서안 견본 주의서를 열람할것
八、응찰자는 재무부령 제九六호해당자로서 六二년도 중합등록 세무서인감증명 본품목에 등록한자
九、제출서류 계획에 의거 등기부등본(법인체) 납세필증명서
一〇、경쟁참가자격 위반한자는 입찰에 참가할수없다
一一、낙찰자는 낙찰금액의 千分의六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一二、재소화 낙찰자는 낙찰후 계약에 [illegible]
一三、체결시에는 제시하여 계약체결
一四、와 같이 입찰 공고함

서기一九六二년四월一七일

육군제一조달근무부대장

東亞案內

求人

鄭貞任 옥분 二五때 헤어진 언니와 조카 찾음 서울③七七八二

백금순 여자15세上衣 흰 블라우스 검정치마 [illegible]

急유모 鍾路區樂園洞 拾番地 김복순

求高校教師 工學 電子 工業學校 建築科 機械科 [illegible]

求 간호원 有資格多年경험 ③五三五四

家庭教師

大商大 高卒受驗生 ②一四二九

法大 三年으로今年休學 ②一四四六

서울法大 有經驗 ⑤ 〇八二九

高大 法大生 유경험 ②四一八七

工大 유학생 다년경험 ⑤二八三八

法大 二年生 中高生 經驗 ③八三〇一

法中 高顆 國五六 ⑤六〇三二

高大 小中 경험 ③一四六八

女 首都高卒 國民校生 ③四三三二

成大 中高卒入住 ③二三六〇

成大 一年生 初中高生 ③二八〇〇

師 大文理大生 ⑧二二一七

教師 서울商大 ②二三五六

募集

外務收金員 募集

收金社員 募集

社員募集

外務社員募集

社員急募集

賣買

苗 果樹 花草

文房具 廉價

廉賣家

坐 中央 三〇萬圜

寶디젤엔징

세탁소急賣

急求發電機

營業

高級時計 修理

泰興社

肺치스토마

순화의원

神經痛 胃腸病 小兒麻痺

電話

電話는 八八

電話는 靑丘

電話賣買

急求電話

피아노入荷

호프만 二〇號

三益피아노社

빌로지 디 로마

演奏會

世界最高의 앙상블

로마의巨匠들遂來韓！

1行 14名 第1回 서울國際音樂祭典의 序幕을 裝飾

當日의 混雜을 피하기爲해서 豫賣券을 利用하여 주십시요

豫賣所 뷔엔나樂器店
美都波·東和百貨店
韓國樂器店
半島호텔

入場料 特席 3,000
1等席 2,000
2等席 1,500

4月 18·19日 下午 7時 30分

市民會館

主催 서울國際音樂祭典行委員會
主管 公報部

外國產유리瓶類使用에關한談話文

政府에서는 各種外來品中 特히 國內產業의 發展을 阻害하며 奢侈性이있는 品目에 對하여는 國內產業의 保護와 健全한 國民經濟의 發展을 期하기 爲하여 關係機關으로하여금 強力한 措置를 取하고 있읍니다

現在 우리나라에는 許多한 種類의 古品外國產유리병이 再使用되고있으며 이러한 容器로 말미암아 國產酒類및 飲料水 調味料等이 國內外에서 不信을 받으며 나아가서는 對外輸出과 販路의 擴大에 至大한 惡影響을 미치고 있읍니다 또한 이로 因하여 國內유리병生產業界를 衰退하게 하여 不振狀態에 놓이게 하였읍니다

이에 政府로서는 各種酒類 飲料水및 調味料等의 容器를 國產品으로 全部代替할것을 決定하고 다음과 같이 公示하오니 關係生產業者諸位는 嚴守하여 政府施策에 協助하여 줄것을 要望합니다

다음

一、現在 各種 生產業者가 保有하고있는 外國유리병은 一九六二年四月二〇日까지 空瓶數量을 品種別로 明記한 報告書를 商工部長官앞으로 提出할것
二、各種酒類 飲料水및 調味料生產業者는 一九六二年四月 日以後는 外來유리병을 使用하지 말것
三、追後 別途로 公示하는 時日以後는 外來유리병을 使用하지 말것
四、但 一般家庭이나 其他 非營業用으로 使用하는 個人所有의 外來유리병은 此限에 不在한다

以上

西紀一九六二年四月十四日

內務部長官 財務部長官 法務部長官 商工部長官

公告

東辰商事株式會社

一、資本의總額 一金參阡萬圜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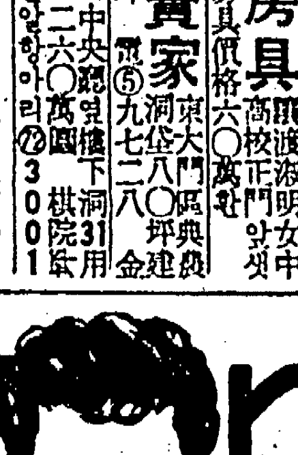
右公告함

西紀一九六二年四月 日

取締役社長 鄭尙辰

株式會社設立登記公告

一、登記番號 第五五〇號
二、登記年月日 西紀一九六二年四月拾參日
三、商號 東辰商事株式會社
四、本店 서울特別市鍾路區瑞麟洞一二四番地
五、目的 ①國內外貿易業 ②「프라크」액사이다製造販賣業 ③前記各項에附帶한事業一切
六、資本의總額 一金參阡萬圜整
取締役社長 鄭尙辰
取締役 鄭相尙
〃 鄭石相
監査役 鄭城守



미용

원서접수중 ※입학금없음

▲모집인원120명 ★연구생 약간명
★어전9시 오후1시야간6시30분
★본과(6개월) 속성과(3개월)
★미용실완비·최신기계·기구설비 시내일류기술교수진 책임 개인지도한
▲졸업서식 최신맛사—지법용 교수한
▲졸업증발급 취직알선 개업지도

서울中區乙支路四街49의1 國都劇場건너便東亞四層빌딩2層

普國美容技術學院

國家檢定考試過程 ○藥學科 ○醫學科 ○漢醫學科

通信講義錄

右記各科에 考試資格 短期速成修了(但大學過程의敎材)을 標準하 指針한 獨學의 高卒以上 又高卒以上의 實力을 가진者 但自由의 職場을 任意로 選擇하는길! 其他仔細事項 入學要綱參照 請求送信料百圜 但入學時(旅行乘車割引券·學生證·뱃지·特殊敎材)發付

서울特別市鍾路區苑南洞一八八(苑南洞市立病院앞)

서울醫藥大學期成會

서울醫藥通信大學

苛性소—다

工業用으로 苛性소—다를 多量消費하시는 工場에서는 弊社苛性소—다工場에서 生產하는 液體苛性소—다를 利用하시기 바랍니다

品位45%를保障하며 廉價로販賣中입니다 또한 下記製品도 生產하고있읍니다

合成鹽酸 HCL 35%
液體鹽素 CL₂ 99.5%

白光藥品株式會社

本社 서울中區乙支路1街115 電話 ②2277·6636
工場 京畿道富川郡素砂邑高尺里 電話 ⑥2513·2514

韓國最大의編物學院

第二六七期

美苑編物

兩鈑機科 片面機科

速成·研究·師範 各科晝夜間班有 기숙사有·通學券發給

開講 수시입학 4月19日

美苑編物學院 新門路二街 ③六六
銀苑編物學院 乙支路三街 ②四一

本院은 韓國稅初로 創立하여 十八年의 歷史와 伝統을 가지고 最新編物機와 技術을 研究하여 國際編物界에 每年一回渡日하여 最新의 技術을 習得하고 있음 個人지도함

獨學生募集

大學通信敎育

東洋醫藥農業通信大學

藥學科 漢醫學科 鍼灸學科 農林學科 藥草栽培學科
(短期大學正課修了 百圜同封請求 學籍簿 男女年令學歷不問 入學隨時 中途無休)

特典: ①隨學金制度 ②本校全在學生은 社友公司社員으로서 學校同窓의 特典이있음

所在地 서울特別市中區乙支路五街四番地(五街버스停留所앞) 電②二六七三

今般本通信大學은 各界有志로 構成된 教授들로 獨學生들에게 研究所를 設置하고 本校卒業生은 技術敎育으로서 後進을 育成할 各地方支部設置할

振替口座서울一八六〇·서울一〇一〇

時事英語學院

YMCA正面

開講 4月16日 수시접수

文昌淳先生

DIGEST

4月晩(夕6—7.10)

英作文·三位一體
留學英語·會話
타임·뉴스위크

美軍放送

청취 要領 강좌

羅建碩 先生 (夕9時)

양재

용산구

※입학금없음·학비극소 ○개강 四월二〇일(처음보는방법에)

▲UZ式(최신개편·지금보다 좋게 입히는 학습) ▲一人一 재봉기 사용 ▲실습 재료 지급 ▲一次來院見學要함 ▲국비자·유가족·무직자 우대

한강로三가六三(육군경리단옆골목)

신용산시장 방아간옆 二층

서울特別市長認可

애덕양재학원